

안철수 “독일서 채움 시간 돌아올 계획 세우지 않아”

“5년9개월 미흡한 점 많아...대한민국 나아갈 방향 숙고할 것”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년9개월 동안 정치를 하며 다량제 시대를 열고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공부하며 깨달음을 얻겠다”며 “그 끝이 어떤건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며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독일 유학 계획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지금쯤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독일에서 시작해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 밖에 없다.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을) 독일로 가는 이유는 우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규모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독일에는 세계 1,2위의 기술력을 갖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실한 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곳이자 분단과 통일 경험의 가진 나라”라며 “독일이 여러 경험을 통해 갖고 있을 시행착오 등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 떠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호 서울취재본부장

‘문고리 3인방’ 전원 유죄...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왼쪽부터)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게 법원이 전원 실형 및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2일 특검법죄

이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중간에서 돈을 전진시키는 등 전 국정원장 3명의 특별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서

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전직 국정원장들 신고와 마찬가지로 특별비 상납을 뇌물죄로 보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원장들 사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지금한 특별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 및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만 1년6개월, 안봉근 2년6개월 실형

정호성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근혜에 뇌물 상납’ 혐의는 무죄선고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 소재 모 호텔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

文대통령은 연차 모두 사용한다는데...이 총리는?

지난해 연차 21일 중 여름휴가로 3일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며 공직사회의 휴가 사용 문화 정착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국정의 총책임자인 이 총리의 연차 활용 현황이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12일 이상 여름휴가 의무와 및 유급 연차 20일을 공약하는 등 ‘원포’ 있는 ‘삼’이라는 국정과제를 줄곧 강조해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틈틈이 연가를 사용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여름휴가를 포함한 8일의 연차를 올해에 몰아서 사용하며, 경주 양동마을, 칠곡 매원마을을 둘러보는 등 ‘공무 성격’의 일정도 일부 소화했다. ‘통합의 내각’을 강조한 이 총리가 호남 출신으로서 영남을 휴가지로 택하면서 이같은 평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움직임과 달리

일반 공직자의 휴가 소진은 녹록지 않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산적한 국정 과제에 밀려 휴가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각의 총책임자인 이 총리의 휴가 사정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8월 이 총리는 3일의 연차를 사용했다. 이 총리는 당시 “주말을 쉬어 닷새를 쉬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지만, 연차 일수는 평일인 8월9~11일 사용만 반영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 휴가 중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들과 휴식기를 가졌다. 이 총리는 연차기간 중 경북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칠곡 매원마을을 둘러보는 등 ‘공무 성격’의 일정도 일부 소화했다. ‘통합의 내각’을 강조한 이 총리가 호남 출신으로서 영남을 휴가지로 택하면서 이같은 평이 나왔다.



없이 올해 분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제15조에 따라 6년 이상 공직에 재직하는 이 총리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다만 이 총리는 지난 3월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5일을 받은 바 있다. 이 총리는 3일장을 마친 뒤 국정에 복귀해 특별휴가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 중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올해 이 총리는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내외의 기간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길게 여름휴가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지지율 4주째 내림세

송영무 ‘여성차별’·최저임금 논란 여파 1.3%p ↓ 6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13 지방선거 이후 4주째 내림세를 걷고 있다. 지난주 대비 1.3%p 떨어진 68%에 머문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7월 2주차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p) 응답률 3.7%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8%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26.6%(매우 잘못 13.6%·잘못하는 편 13.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집계

됐다. 지난주 석 달 만에 70%대 밑으로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68.9%·7월 1주차 주간집계)은 1.3%p 더 빠지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는 마이크로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부정적 보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여성차별’ 발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후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외교 성과 소식 등 긍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

(7%p ↓·55.6%)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5.8%p ↓·64.9%), 대구·경북(4.1%p ↓·55.3%), 광주·전라(3.0%p ↓·81.1%) 순으로 하락하며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4.4%p 빠진 55.8%를 기록, 하락폭이 가장 컸다. 50대(2.1%p ↓·62.4%), 40대(1.0%p ↓·77.6%) 순으로 떨어졌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9%p ↓·18.3%)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6%p ↓·92.8%)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정의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주 대비 2%p 올라 12.4%를 기록했다. 7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의당은 자유한국당(16.8%)을 4.4%p 차로 바짝 추격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폼페이오 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